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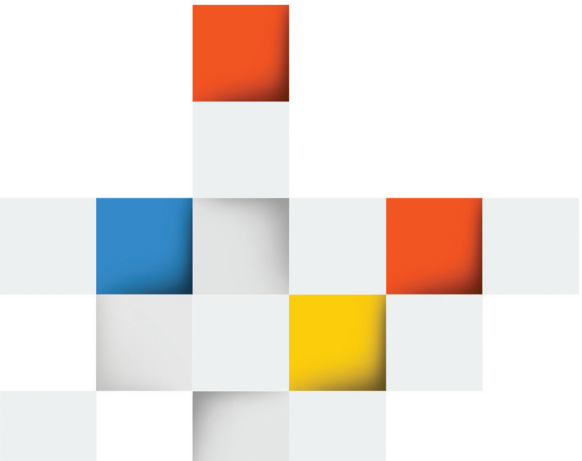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019-10000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실태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 준 (연세대학교)

-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은 2020년 이후 다소 늘었다가 줄어들어 2024년 6.8%이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은 2020년 20% 이상에서 2024년 9.8%로 꾸준히 줄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중에는 환경권의 침해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020년 29.5%에서 2024년 14.3%로 낮아졌으며, 차별당한 사유로는 연령이 가장 많고, 다음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었다.
- 인권침해와 차별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낮추며, 삶의 만족도 하락의 정도는 차별 경험이 가장 크고, 다음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의 순이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에는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중에는 안전의 위협이, 그리고 차별 중에는 학력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비율은 남성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와 차별 경험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고, 이로 인한 삶의 만족도 수준의 하락 정도는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의 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권침해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의 정도 역시 30대와 40대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차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하락은 2022년과 2024년에는 20대가, 2023년에는 60대 이상이 가장 컸다.

인권의 보호와 존중은 근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성립된 모든 근대 국가의 헌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세기 전반에 시작된 국제 인권규범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으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인권 보호와 존중을 선언하는 것과 이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국제사회와 국가기구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은 거시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미시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 글에서는 2020년부터 정부 승인통계로 매년 7,000여 가구의 14,000여 표본을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인권침해나 차별의 실태 및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 특히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낮은가를 살펴본다. 이 조사는 2020년부터 지난 1년간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이 있었는지를 침해 권리별로, 차별 사유별로 조사해 왔다.

먼저, 인권침해와 차별의 공식적 정의와 그 내용을 살펴보자.

인권침해와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별행위"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의 하나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고용 형태, 정치적 의견, 전과, 건강 상태, 사회적 의견, 노조 활동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인권침해"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들 중에서 평등권[1]을 제외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뜻하며,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금지, 이중처벌 금지(13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자유와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22조)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인권법에서는 기본권을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국가의 불간섭과 법적 보호가 핵심이며, 즉각적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중시하고, 점진적 실현이 인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권리에는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 및 환경권, 문화권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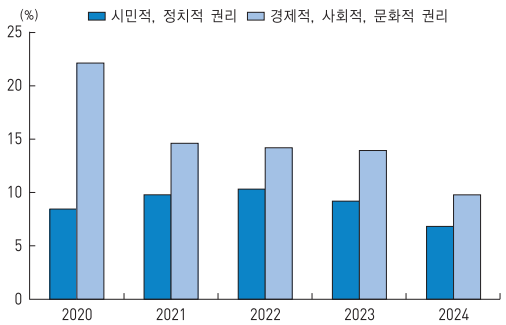
1) 평등권의 침해는 앞에서 규정한 차별에 해당한다.

인권침해와 차별의 경험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은 인권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스스로 침해당했거나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인식이다. 주관적 인식 조사이기 때문에 측정 오차의 가능성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관적 인식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그림 xi-1]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

[그림 xi-1] 인권침해 경험 비율, 2020-2024[1]



주: 1) 인권침해 경험 비율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100에서 뺀 값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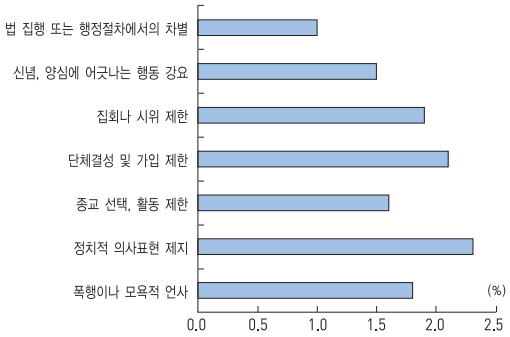
리로 나누어, 지난 1년간 이들 권리의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에 의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2020년 8.4%에서 2022년 10.3%까지 늘었다가 이후 낮아져 2024년에는 6.8%이다. 한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2020년 22.1%로 높았으나 이후 2021~2023년에 14% 정도로 낮아졌고 2024년에는 9.8%이다.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보다 많지만,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줄었다. 또한 이후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모두 줄어들고 있다.

상세한 권리 항목별로 침해 경험 비율을 살펴보자. 먼저, [그림 xi-2]에 제시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항목별 침해 경험을 보면, 2024년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2.3%)가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이 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2.1%), 집회나 시위 제한(1.9%)이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장 비율이 낮은 것은 법 집행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차별(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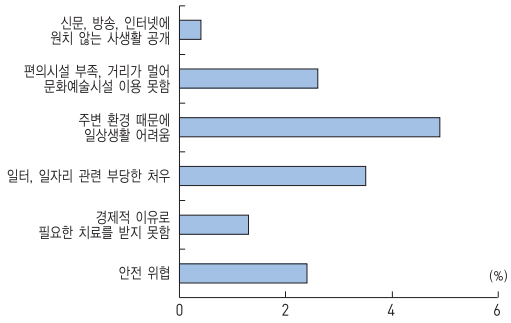
[그림 xi-2]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 202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2024.

다음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항목별 침해 경험 비율을 보여주는 [그림 xi-3]을 살펴보자.

[그림 xi-3]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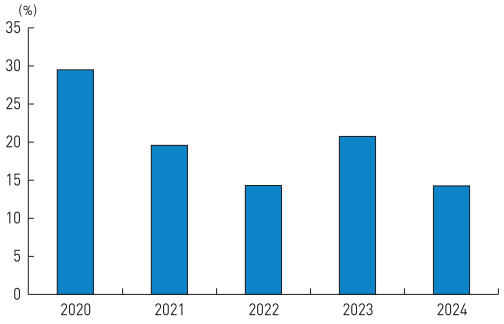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2024.

다양한 권리들 중에서 환경권 침해, 즉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4.9%)는 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동권 침해, 즉 일터나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3.5%)를 겪거나, 문화권 침해, 즉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지 못한(2.6%) 경험의 순이었다. 신문, 방송, 인터넷에 원치 않는 사

생활이 공개되었다(0.4%)는 경험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자. [그림 xi-4]를 지난 1년간 어떤 사유로든 한 번이라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20년 29.5%에서 점차 낮아져 2021년 19.6%, 그리고 2022년에는 14.3%로 절반 정도로 낮아졌으나, 이후 2023년에 다시 20.8%로 높아졌고, 2024년에는 14.3%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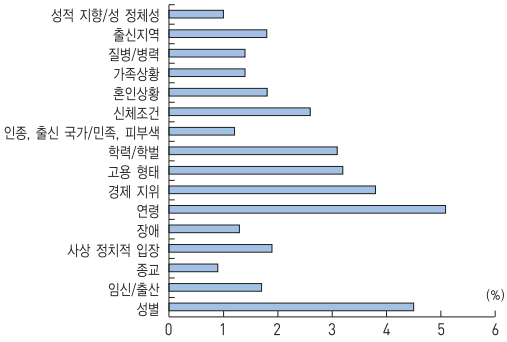
[그림 xi-4] 차별 경험 비율, 2020-202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각 연도.

이제 차별 사유별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xi-5]는 차별 사유별로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을 보여준다. 다양한 차별의 사유들 중에서 연령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5.1%)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별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4.5%)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거나 높아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며, 성별 역시 여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위(3.8%) 혹은 고용 형태(3.2%), 학력이나 학벌(3.1%) 등 사회경제적 이유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xi-5] 사유별 차별 경험 비율, 202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2024.

차별 사유 중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낮은 것은 종교(0.9%),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1%), 인종, 출신 국가나 민족, 피부색(1.2%)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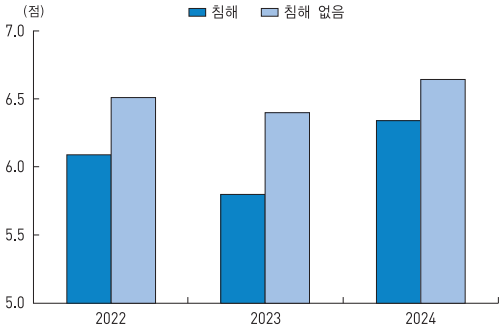
인권침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권침해의 경험은 결코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다. 또한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xi-6]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 중에서 하나라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연도별로 비교한다. 2022년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경험이 없는 경우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6.51점인 반면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의 만족도 평균이 6.09점이었으며, 2023년에는 각각 6.40점과 5.80점, 그리고 2024년에는 각각 6.64점과 6.34점이었다. 인권침해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2022년 0.42점, 2023년 0.60점, 2024년 0.30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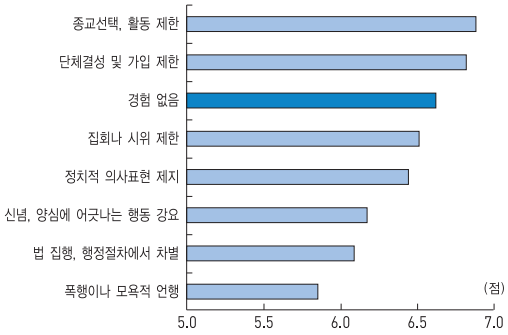
[그림 xi-6]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2022-202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7]은 2024년 조사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각각에 대해 공공기관에 의한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삶의 만족도 평균 수준을 비교한다. 삶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은 경우는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을 당한 경우(5.85점)였으며, 다음이 법 집행이나 행정절차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6.09점),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당한 경우(6.17점)의 순이었다. 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을 당한 경우(6.82점)나 종교 선택이나 활동을 제한당한 경우(6.88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 어느 것도 침해당한 경험이 없는 경우(6.62점)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7]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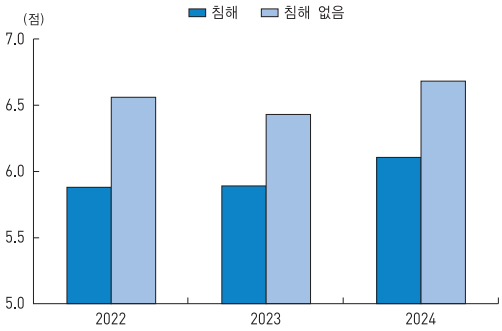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원자료 2024.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비해 인권침해 경험의 비율이 높은 편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림 xi-8]은 연도별로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 중에서 하나라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삶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다.

2022년 조사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6.56점인 반면, 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의 만족

[그림 xi-8]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2022-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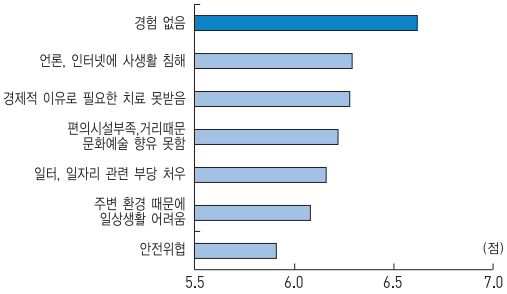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도 평균이 5.88점이었으며, 2023년에는 각각 6.43점과 5.89점, 그리고 2024년에는 각각 6.68점과 6.11점이었다. 인권침해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2022년 0.68점, 2023년 0.54점, 2024년 0.57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에 비해 삶의 만족도를 더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9]는 2024년 조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각각에 대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삶의 만족도 평균 수준을 비교한다.

삶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은 경우는 안전권 침해, 즉 안전을 위협당한 경우(5.91점)였으며, 다음이 환경권 침해, 즉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6.08점), 노동권 침해, 즉 일터, 일자리 관련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6.16점), 문화권 침해, 즉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거리 때문에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한 경우(6.22점) 등의 순이었다. 건강권 침해, 즉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못 받은 경우(6.28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당한 경우(6.29점)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6.62점)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xi-9]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별 침해 경험별 삶의 만족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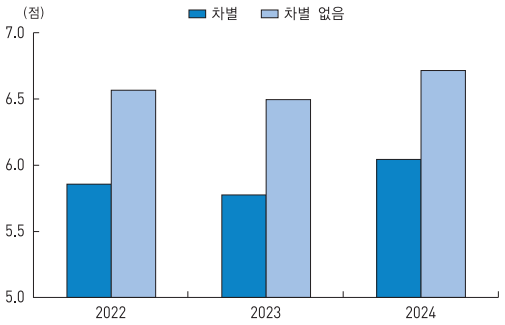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원자료 2024.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도

지난 1년간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림 xi-10]은 차별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각각 5.86점, 5.78점, 6.05점으로 차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의 평균인 6.57점,

6.50점, 6.72점에 비해 각각 0.71점, 0.72점, 0.67점의 차이를 보이며 낮다. 차별 경험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 인권침해 경험에 비해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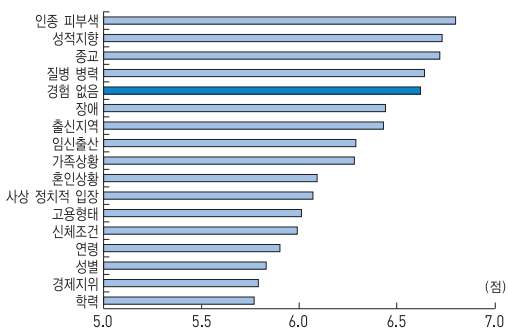
[그림 xi-10] 차별 경험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2022-202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11]은 차별 사유별로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학력(5.77점), 경제 지위(5.79점), 성별(5.83점), 연령(5.90점), 신체조건(5.99점), 고용 형태(6.01점)에 따른 차별 경험의 순이었다. 한편 인종이나 피부색(6.80점), 성적 지향(6.73점), 종교(6.72점), 질병(6.64점)이나 병력(6.62점)에 따른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 평균이 높았다.

[그림 xi-11]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202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원자료 2024.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 정도의 인구학적 배경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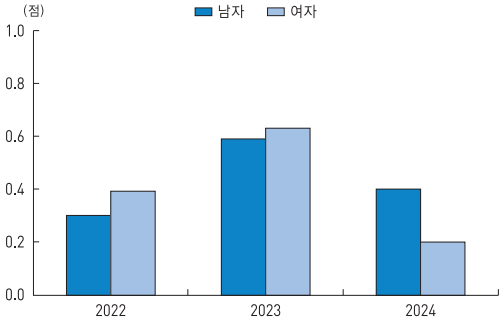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면 성별, 연령대별로 그 영향은 얼마나 다를까?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의 성별, 연령대별 빈도를 보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남성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와 차별 경험은 여성이 조금 더 많다. 또한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모두 30대와 40대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하락도 이들 인구학적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그림 xi-12]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정도를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를 연도에 따라 보여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에 따른 만족도의 하락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지만, 2024년에는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2022년에는 30대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에 따른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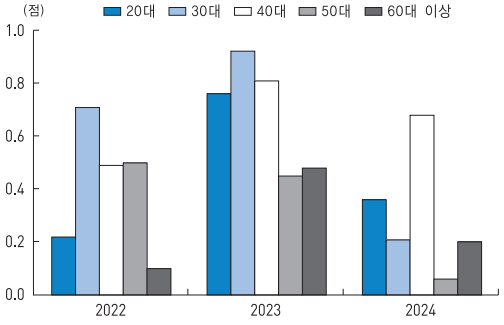
의 하락이 가장 크지만, 2024년에는 4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림 xi-12]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2022-2024

1) 성별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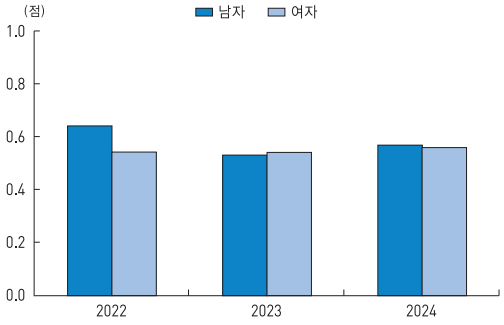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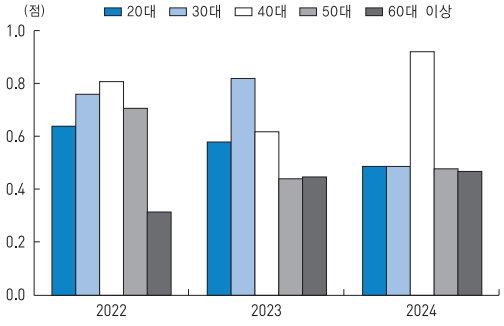
[그림 xi-13]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하락의 정도를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에 따른 만족도의 하락은 2022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지만, 2023년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이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2022년과 2024년에는 40대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하락이 가장 크지만, 2023년에는 30대에서 삶의 만족도 하락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림 xi-13]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2022-2024

1) 성별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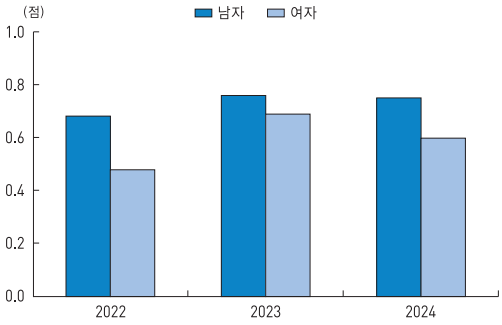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마지막으로, 차별의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하락은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까? [그림 xi-14]는 차별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하락의 정도를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차별 경험에 따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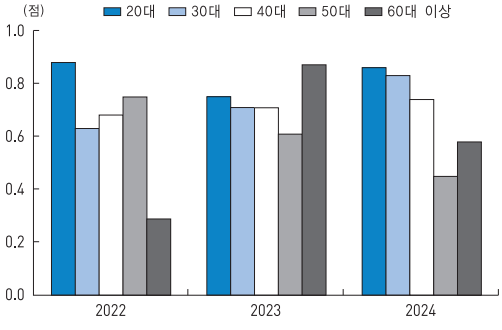
의 하락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일관되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한편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2022년과 2024년에는 20대에서 차별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하락이 가장 크지만, 2023년에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림 xi-14] 차별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2022-2024

1) 성별



2) 연령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맺음말

시민적, 정치적 권리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이 그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의 하락이 더 두드러진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으로 느껴졌고 이를 인권 침해로 느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2023년부터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아져 2024년에는 각각 6.8%와 9.8%이다. 모든 연도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를 앞선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이 더 높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의 정도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에 비해 더 크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 중에서 특히 침해를 경험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안전권, 환경권, 노동권의 순이다. 각종 사고나 범죄로 인한 안전의 위협,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권 위협,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나 고용의 불안 등에 따른 노동권 침해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보다 더 높고, 그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의 정도 역시 더 크다. 차별 사유 중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반면, 삶의 만족도 하락의 정도가 큰 것은 학력과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격차가 삶의 만족도를 직접 낮출 뿐 아니라 차별을

통해서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침해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나 차별 경험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드러진다. 연령대별 비교에서는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 경험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차별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은 20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